

양현종 “다승왕 경쟁 끝나지 않았다”



<양현종>

류현진·김광현 15승 공동 1위속 14승으로 바짝 뒤쫓아
4~5차례 등판 가능... 팀 마지막 자존심 지킬지 관심

양현종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외롭지만 한번 해 볼만한 싸움이다.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후반기 대비에 실패하면서 4강 싸움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다. 올 시즌 KIA 선수 중 유일하게 타이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현종의 다승왕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다승부문에서 좌완 3인방이 나란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23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고 있는 한화의 류현진이 가장 먼저 15승 고지에 올랐다. SK의 자존심 김광현은 지난 22일 다승왕 경쟁자 류현진의 소속팀 한화를 상대로 15번째 승리를 챙기며 다승 공동 1위에 올라섰다. 두 괴물 투수가 15승으로 다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KIA 양현종은 14승으로 그 뒤

를 바짝 쫓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귀중한 1승을 챙기지 못하는 사이 두 괴물투수가 15승 자리를 선점했다. 전반기 움직임은 양현종이 가장 빨랐다. 3월30일 시즌 첫 등판이었던 삼성전에서 패전투수가 됐지만 이후 10연승 행진으로 8개 구단 투수중 가장 먼저 10승을 채웠다. 하지만 팀 역사상 첫 좌완 15승 투수라는 타이틀을 앞두고 양현종의 움직임이 둔해졌다. 전신 해태 시절을 포함해 타이거즈에서 15승을 거둔 좌완은 없다. 김정수 불펜 코치와 신동수 동승고 감독이 거둔 14승이 팀 좌완 역대 최다승이다. 본인에게는 물론 팀에게도 1승이 간절하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양현종은 최악의 피칭을 보였다. 지난 14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1과 3분의 1이닝 동안 5실점을 하며 2회도 버티

지 못하고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20일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3과 3분의 2이닝 동안 4실점(3자책)을 기록하며 시즌 5패째를 안았다. 피로누적 속에 투구 밸런스가 흔들린 양현종은 두 경기에서 사사구 13개를 납발하며 좌완 에이스로서의 자존심을 구겼다. 양현종은 올 시즌 24경기에 출전해 팀내 가장 많은 이닝(135와 3분의2이닝)을 책임지면서 '연패 브레이커'의 임무까지 소화했다. 하지만 많은 짐을 떠안고 올 시즌을 보내온 양현종이 결정적인 순간 흔들리면서 KIA의 4강 싸움이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양현종은 팀이 3연패에 빠진 지난 주말 경기기 끝난 후 그라운드에서 혼자 남아 새도 피칭을 했다. 투구 밸런스를 잡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심야 특훈에 나선 것이다. KIA에게 남은 경기는 이제 20경기. 한화는 19경기, SK는 24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양현종은 앞으로 4~5차례 더 마운드에 등판할 수 있다. 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양현종의 다승왕 도전에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 병역도 고려해 뽑겠다”

김인식 기술위원장, 내달 6일 최종 엔트리 22명 확정

“오는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상의 전력을 꾸려야 한다. 같은 포지션의 선수가 기량이 비슷하다면 병역 미필자를 우선할 생각이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다.” 김인식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장은 24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야구 대표팀을 최고 전력으로 구성하겠다고 선수들의 병역 문제도 일정 부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KBO와 대한야구협회는 다음 달 6일 야구 대표팀 사령탑인 조범현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위원회를 열어 대표팀 최종 엔트리 22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비 엔트리 63명 중 병역을 마치지 않은 선수는 28명에 이른다. 기술위원회는 앞서 우완 투수 김선우(두산)와 3루수 조동찬(삼성), 김상현(KIA)을 추가한 63명의 예비 명단을 발표했다. 김인식 위원장은 예비 엔트리 63명이 최종 대표로 발탁되는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들어갈 선수들이 모두 망라됐다. 최종 대표 22명은 63명의 범위에서 벗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좌완 투수들은 그래도 좋은 자원이 많아 문제가 없는 데 우완 투수가 문제다. 외야수도 좌타자들이 수두룩하지만 쓸만한 우타자가 많지 않다. 마무리 투수도 확실한 믿음을 줄 선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우완 투수 중 오승환(삼성)과 조정훈(롯데)이 부상 여파로 낙마했고 윤석민(KIA)도 100%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야수도 예비 명단에 든 10명 중 추신수(클리블랜드), 이종욱, 김현수(이상 두산), 이대형, 이진영(이상 LG), 이용규(KIA), 박한이(삼성) 등 7명이 좌타자이고 오른손 타자는 이택근(LG), 김강민(SK), 유한준(넥센) 등 네 명으로 적다. 마무리 투수도 이용찬(두산)과 이승호(SK), 손승락(넥센) 등이 예비 엔트리에 올라 있지만 오승환, 임창용(야쿠르트), 정대현(SK) 등이 뛰었던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보다 중량이 다소 떨어진다. 김 위원장은 “조범현 감독, 기술위원들과 상의해 최상의 전력을 낼 선수들을 뽑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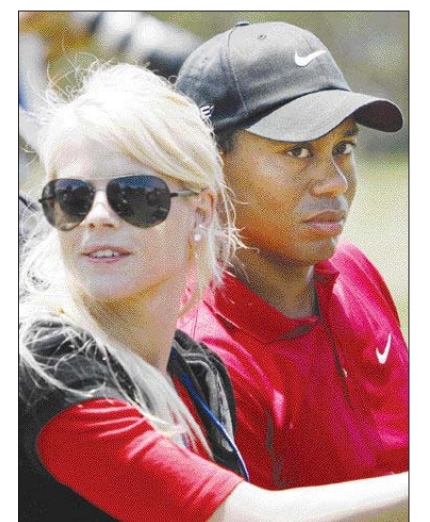
아메리칸 풋볼 개막 임박

미국프로풋볼(NFL)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테네시 타이탄스 선수들이 23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 LP필드에서 연습경기를 하고 있다. 2010년 NFL 정규리그는 9월 10일 미네소타와 뉴올리언스의 대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

이혼한 우즈 명예회복 할까

PGA 투어 플레이오프 내일 개막

2010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최종 승자를 가리는 플레이오프가 26일(이하 한국시간) 바클레이스 대회부터 막을 올린다. 올해 PGA 투어 정규대회 성적으로 부여받은 점수를 합산, 상위 125위 안에 든 선수들은 미국 뉴저지주 퍼라머스의 리지우드골프장(파71·7319야드)에서 열리는 플레이오프 1차전 바클레이스 대회 출전권을 얻었다. 플레이오프 2차전인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에는 상위 100명, 3차전인 BMW 챔피언십에는 70명, 최종전인 투어챔피언십에는 30명을 추려내 총 4차례까지 점수를 가장 많이 획득한 선수가 우승트로피와 함께 1천만달러의 상금을 차지한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우즈가 우승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30명을 추려내는 최종전 투어챔피언십까지 나가야 하는데 현재로는 장담할 수 없다. 우즈는 페덱스컵 랭킹 112위(431점)

엘스·스트리커·퓨릭 등 정상 도전

최경주·양용은·앤서니김 선전 기대

로 간신히 바클레이스 출전권을 얻었다. 이번 주 대회에서 점수를 많이 쌓지 못한다면 상위 100명만이 나갈 수 있는 도이체방크 챔피언십 진출이 무산된다. 우즈는 이번 부진에 대해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어니 엘스 절호의 기회, 코리안브라더스 = 우즈의 부진으로 플레이오프 정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선수들은 어니 엘스(남아공), 스티브 스트리커, 짐 퓨릭, 필 미켈슨(이상 미국) 등이다. 엘스는 이번 시즌 두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페덱스컵 포인트 1846점을 쌓아 선두를 달리고 있다. 뒤를 스트리커(1697점), 퓨릭(1691점), 미켈슨(1629점)이 근소한 점수 차로 추격하고 있어 매대회 성격에 따라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 명예회복 마지막 기회 = 성추문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다 지난 4월 메이저대회 마스터스에 복귀했던 우즈는 올 시즌 단 한차례도 우승하지 못했다. ◇우즈, 명예회복 마지막 기회 = 성추문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다 지난 4월 메이저대회 마스터스에 복귀했던 우즈는 올 시즌 단 한차례도 우승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광양 출신 양지호 단독 선두

레이크힐스오픈 1R

광양 출신 프로 3년차 양지호(21·투어스테이지)가 한국프로골프(KGT) SBS투어레이크힐스오픈 첫날 단독 선두로 나섰다. 양지호는 24일 경기도레이크힐스 용인골프장(파72·7116야드)에서 열린 대회 1타

운드에서 버디 10개를 뽑아내고 보기 1개를 곁들여 9언더파 63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비가 내려 한때 경기가 중단돼 오후 5시 현재 모든 선수들이 18홀을 풀지 못했지만 양지호는 5언더파 67타를 친 이부영(46) 등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광양제철고에 재학 중이던 2005년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냈던 양지호는 같은 해 중고연맹대회에서 네차레나 우승했고 2009년 켈

리파이스쿨을 통해 정규투어 출전권을 받았다. 양지호는 정확한 어프로치샷과 퍼트 전방에만 5타를 줄이며 선두권으로 뛰어 올랐다. 13번홀(파3)에서는 10m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던 양지호는 비가 오면서 경기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14번홀(파5)에서 리듬이 깨지면서 보기를 적어냈다. 하지만 양지호는 남은 4개홀에서 버디 3개를 보태며 기분 좋게 첫날을 마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합뉴스